



2026. 7. 31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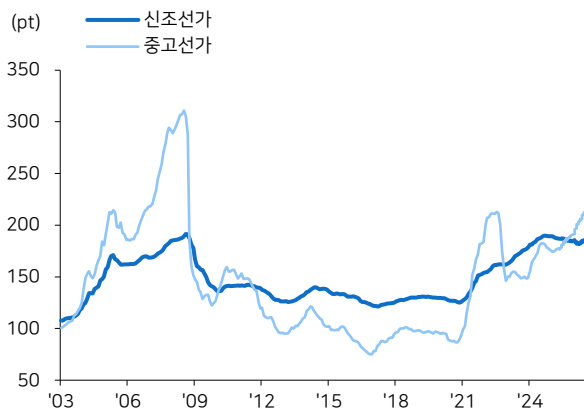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4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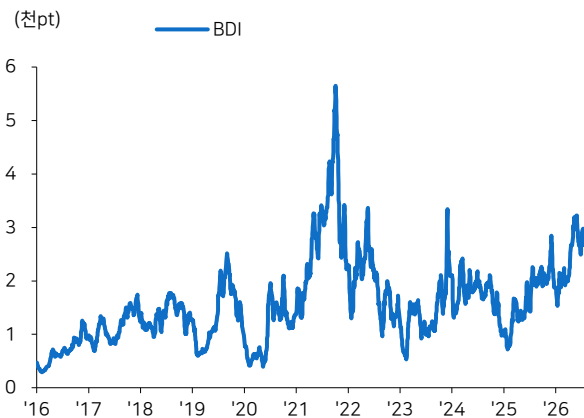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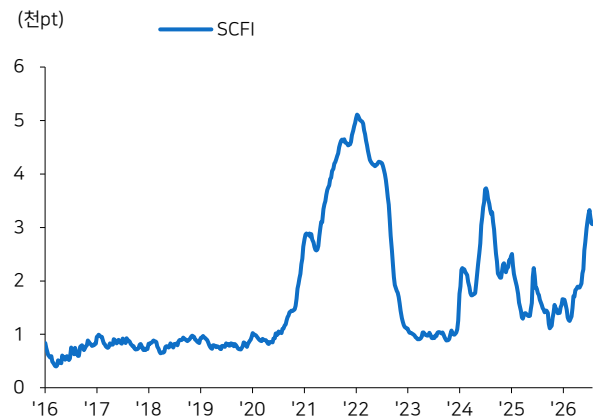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32.0p (-3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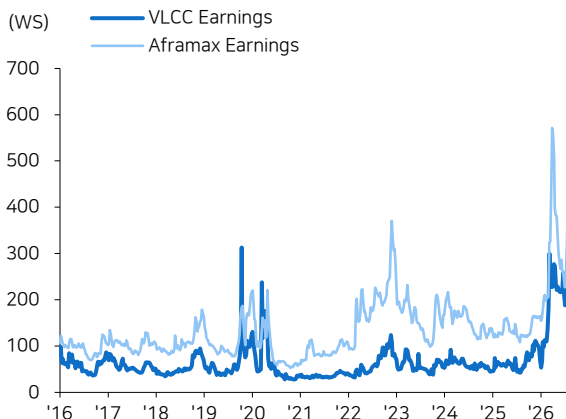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063.0(-17.4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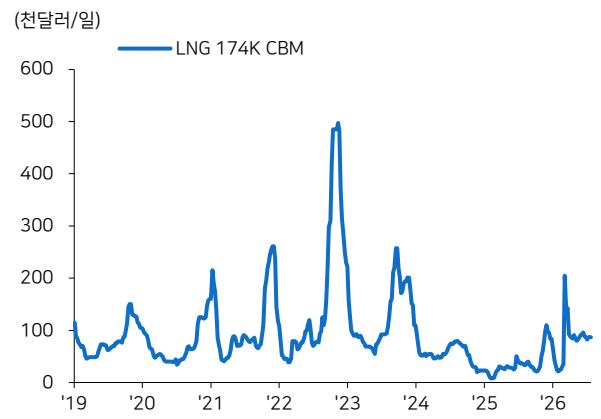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28.0WS (+0.1p WoW)



LNG Spot 운임

86.5천달러 (-0.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 '물 위 데이터센터' 사업 본궤도... 내주 美 M3와 엔지니어링 계약 (조선비즈)

<https://zrr.kr/tchGgh>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데이터센터 개발사인 무스테리안(M3)과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프로젝트를 위한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조선사 중 FDC 개념설계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첫 사례라고 보도됨. M3는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변 부지를 발굴하고 빅테크 등 입주 고객을 유치해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회사로,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첫 FDC 설비의 설계와 사양을 구체화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이번 프로젝트는 거제조선소의 상선 독을 활용해 기존 FLNG 물량에 영향 없이 건조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력·용수 확보 및 인허가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시리즈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해짐.

美 군함 '분산 조선' 확대... 마스가 협력 기대감 (조선일보)

<https://zrr.kr/xOWUUK>

미국의 최대 군함 전문 조선사인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가 이시스 구축함에 이어 수송 상륙함에도 '분산 조선(Distributed Shipbuilding)' 공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이는 외부 조선소에서 대형 구조물(블록)을 나누어 제작한 뒤 주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숙련공 부족과 건조 지연을 겪는 미국 조선업계에서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짐. 또한 향후 MASGA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군함 건조 협력 시 한국 조선소가 초기 블록 제작 등을 맡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 미국 조선소 현대화 첫 수출... '조선소 짓는 법' 전수 (아시아경제)

<https://zrr.kr/anpkbc>

HD한국조선해양이 미국의 Fraser Industries LLC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조선소 현대화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스마트 조선소 구축 역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력은 HD한국조선해양의 신사업인 '조선소 건설 종합 솔루션'의 일환으로, 오대호 연안의 Fraser 조선소를 대상으로 설비 및 생산 체계 진단, 야드 배치 설계, 로봇·자동화 설비 도입, AI 기반 디지털 솔루션 적용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짐. 양사는 연내 조선소 현대화 컨설팅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프레이저 조선소를 미국 조선업 재건의 실증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STX 엔진, 방산 AI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 디노티시아와 협약 (해사신문)

<https://zrr.kr/J1xYqB>

STX엔진이 AI 전문기업 디노티시아와 창원 방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통해 디노티시아는 AI 데이터센터의 기획, 개발 및 운영을 맡고, STX엔진은 전략적 투자와 함께 발전기 등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설비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양사는 방산 분야의 데이터 기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와 방산 특화 AI 인프라를 조성하여 국방 디지털 전환 및 첨단 방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으로 전해짐.

빌 게이츠 내달 방한... SK-HD 현대 등과 SMR 협력 강화 (한경비즈니스)

<https://zrr.kr/NPdbzu>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이자 게이츠재단 이사인 빌 게이츠가 오는 9월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달 방한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 및 SK, HD현대, 두산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됨. 이번 방한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전 기업 TerraPower의 소듐냉각고속로 기반 SMR '나트륨'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파트너 사들과의 기자재 공급망 구축 및 한·미 SMR 동맹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으로 알려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정부가 SMR 육성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의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전해짐.

STX 엔진, 중국 NTS 조선소에 선박용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공급 (연합뉴스)

<https://zrr.kr/mmVjou>

STX엔진이 중국 NTS조선소와 1만9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총 14척(확정 8척, 옵션 6척)에 탑재될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선박 1척당 친환경 이중연료(DF) 엔진 2대와 디젤 엔진 2대가 교차 공급되며, NTS조선소가 건조하는 선박들은 덴마크 해운사 MAERSK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짐. 이중연료 엔진 방식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를 충족하고 건조 및 운항 비용을 낮출 수 있어, STX엔진의 친환경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로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